

한주간 쉽게 보는

국내 미래산업 연구 및 정책동향

Domestic Future Industry Research and Policy Trends

No. 104



Contents



※ 2025.11.13(목) 기준(대상 기간 : 2025.11.06.~2025.11.12.)

□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1

■ 탄소중립 분야 1

- 정부, '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(NDC)' 공청회 개최(2025.11.06)1
- 정부, 탄소중립 R&D·시설투자에 2973억 원 융자 지원(2025.11.06)1
- 행복청, 행복도시 탄소중립 위한 '탄소제로RUN' 캠페인 개최(2025.11.06)1
- '2025 경기도 기후리더십 데이' 8일 개최, 탄소중립 성과 공유(2025.11.06) 2
- 충남도의회, "친환경 냉매 전환 및 히트펌프 고도화 지원" 촉구(2025.11.06) 2
- 춘천시 14일 '탄소감축과 이끼산업 활성화 방안' 포럼 개최(2025.11.06) 2
- 금강청·삼성전자, 충북 옥천에 '탄소중립 숲' 공동 조성(2025.11.06) 3
- 완주군의회 탄소중립 특위, '분산에너지 4차 포럼' 개최(2025.11.06) 3
- 청주시,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로 탄소중립 박차(2025.11.07) 3
- 창원시, 2025년 탄소중립·물순환 등 환경도시 전환 성과 발표(2025.11.11) 4

■ AI 분야 4

- 행정안전부, 'AI정부실' 신설 등 조직 개편 추진(2025.11.06) 4
- 내일사장, 생성형 AI와 빅데이터로 소상공인 창업 지원(2025.11.06) 4
- 정부, AI 등 첨단산업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계획...파격적 세제·금융 지원(2025.11.06) 5

- 포항시, AI 접목 '스마트헬스케어 도시'로 도약...건강생활지원센터 착공(2025.11.06) 5
- 대구시, 지역 특화 '버티컬 AI'로 AX 전략 추진(2025.11.06) 5
- 경상남도, '생성형 AI 기반 통합복지플랫폼' 구축 착수(2025.11.06) 6
- 김영록 전남지사, "AI·에너지 수도로 연간 1조 원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"(2025.11.06) · 6
- 부산 사하구, 900만 원으로 자체 AI 개발...타 기관 벤치마킹 이어져(2025.11.06) 6
- 울산 미포산단, '분산 에너지 특구' 지정 보류...SK·아마존 AI 데이터센터 차질 우려
(2025.11.06) 7

□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7

■ 탄소중립 분야 7

- 국가철도공단, 탄소중립 위한 'SBTi' 인증 본격 추진(2025.11.07) 7
- 중소 제조업 위기, AI·탄소중립 공동 대응 필요성 제기(2025.11.11) 8
- 울산생명의숲, 울산고에 '탄소중립 숲' 조성 기금 전달(2025.11.06) 8

■ AI 분야 8

- 철도공단, '2025 스마트건설·안전·AI 엑스포' 개최(2025.11.06) 8
- 케이워터기술, AI·로봇 기반 첨단 점검정비 기술로 물관리 혁신(2025.11.06) 9
-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, '충북 AI전략연구센터' 개소(2025.11.06) 9

□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(포럼, 세미나, 토론회) 주요 내용 10

■ 탄소중립 분야 10

- 신한 글로벌탄소중립솔루션 펀드, 1년 수익률 92.52%로 1위 달성(2025.11.06)10
- KCC-HD현대, 선박용 수용성·차단열 도료 공동 개발로 탄소중립 추진(2025.11.06) .. 10
- 엔틀·산단공, 베트남 방문단 대상 주안산단 탄소중립 사례 견학 주최(2025.11.06) 10
- 금호석유화학그룹, 환경 경영 내실화로 탄소중립 가속(2025.11.06) 11
- 대성해강사이언스포럼, "AI가 바이오 혁신 및 에너지 효율 주도"(2025.11.06) 11
- UNIST, '배터리·AI·탄소중립' 주제 전기화학 파이오니어 심포지엄 개최(2025.11.11) 11
- 전남대 차세대통신사업단, '광주 마니' 팝업 아카데미 개최(2025.11.06) 12
- 지난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역대 최고치 경신(2025.11.06) 12
- 기고: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K-water의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노력(2025.11.06) 12

■ AI 분야 13

- SKT "이동통신과 AI의 융합, 6G 시대 핵심 동력"(2025.11.06)13
- 아나플래시, 삼성 파운드리 28nm 공정 기반 AI MCU 공개(2025.11.06)13
- 제논, AI가 실제 업무 수행하는 '액서너블 AI' 공개(2025.11.06)13
- 퀼컴, HBM 대신 LPDDR 탑재한 신형 AI 가속기 출시 예고(2025.11.06)14
- 깃허브 '에이전트 HQ' 발표, AI 에이전트 허브 전략 확산(2025.11.06)14
- SK그룹, CEO 세미나 개최...리밸런싱 및 AI 미래 전략 재정비(2025.11.06)14
- 하나금융그룹, 디지털자산과 AI를 축으로 금융 대전환 선도(2025.11.06)15
- 파두, AI 데이터센터 성장세 힘입어 올해 누적 수주 834억 원 달성(2025.11.06) 15

- 대우건설, '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' 의장사 취임...AI·데이터 도입 주도(2025.11.06)	15
- 인하대, 퓨리오사AI와 AI 반도체 설계 및 인재 양성 협약(2025.11.06)	16
- 울산대, '글로벌 인더스트리얼 AI 대학원' 설립 추진(2025.11.06)	16
- 미국 'AI 거품론' 여파로 국내 증시 급락, 개인이 4000선 방어(2025.11.06)	16
- 오픈AI "현재 IPO 계획 없다", 1조 달러 상장설 부인(2025.11.06)	17
- AI 시대 한국 성인교육 참여율, OECD 최하위 수준 기록(2025.11.06)	17
- 기고: 한국에 세계 최고 인재 모이는 'AI 프리미어리그' 필요(2025.11.06)	17
- 기고: 정부·기업의 엔비디아 GPU 대량 구매, K-AI칩 육성 전략 부재(2025.11.06)	18

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

☞ 탄소중립 분야

구분	제목 및 주요 내용
중앙부처	☐ 정부, '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(NDC)' 공청회 개최(2025.11.06) - 정부가 6일 국회에서 '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(NDC)' 공청회를 열고 정부안 발표. 이는 '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'에 따른 공식 의견 수렴 절차임 - 정부는 지난 9~10월 진행한 6개 분야 대국민 공개논의 결과를 종합해 최종 정부안을 공개함. NDC 이행을 위한 '대한민국 녹색전환(K-GX) 전략 방향'도 함께 발표 - 공청회 의견 수렴 후,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 확정. 확정된 NDC는 '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(COP30)'에서 공식 발표 예정
	☐ 정부, 탄소중립 R&D·시설투자에 2973억 원 융자 지원(2025.11.06) - 정부가 탄소 감축 시설 구축 및 R&D 관련 16개 신규 프로젝트에 향후 3년간 2973억 원 규모의 융자금 지원. 총 9630억 원의 민간 투자 유발 전망 - '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'은 온실가스 감축 시설 및 R&D에 장기·저리 융자금을 지원하는 제도. 올해 상반기 9개에 이어 16개 프로젝트 추가 선정 - 선정 기업은 S-OIL 등 대기업과 중소·중견기업 포함. 최대 500억 원 한도로 연 1.3% 금리, 최대 10년 지원. 산업부는 이를 통한 산업의 저탄소 구조 전환 기대
	☐ 행복청, 행복도시 탄소중립 위한 '탄소제로RUN' 캠페인 개최(2025.11.06) -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지난 4일 '탄소제로RUN' 캠페인 개최. 행복도시의 탄소중립 명소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찾아가는 릴레이 방식 - 캠페인은 “CO2 0(ZERO)” 모양의 코스를 달리기, 플로깅, 자전거 등으로 이동하는 시민 참여형으로 기획. 행복청 직원, 청년 동호회, 어린이 등이 참여 - 행복청은 2040년까지 행복도시를 '넷제로(Net-Zero)' 도시로 만들 목표. 에너지 자급자족, 친환경 인프라 확대 등 5대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이행 중

구분	제목 및 주요 내용
지자체	□ '2025 경기도 기후리더십 데이' 8일 개최, 탄소중립 성과 공유(2025.11.06) - 경기도가 오는 8일 '2025 경기도 기후리더십 데이' 개최. 행사 목적은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올해 성과 공유 및 도민 소통의 장 마련 - 주요 프로그램은 탄소중립 유공자 43명 표창, 2025년 추진 성과 공유, 기후 토크 콘서트 등으로 구성. 약 300명의 관계자 및 도민 참석 예정 - 센터의 주요 성과로 도민추진단의 어르신 대상 앱 설치 교육을 통한 60대 이상 가입자 급증, 기후봉사단 '기봉이' 활동, 7개 시군 센터의 지역 선도사업 추진 등이 있음
	□ 충남도의회, "친환경 냉매 전환 및 히트펌프 고도화 지원" 촉구(2025.11.06) - 충남도의회가 5일 본회의에서 '친환경 냉매 전환 및 히트펌프 고도화 지원 촉구 건의안' 채택. 정부와 국회에 국가 전략 및 재정 지원 공식 요청 - 히트펌프는 무탄소 냉난방의 핵심 기술이나, GWP가 높은 불소계 냉매 사용이 문제로 지적됨. 냉매 전환 없이는 진정한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 - 유럽연합은 이미 저GWP 천연냉매 전환을 법제화함. 우리나라도 국제 규제에 맞춰 국가 로드맵 마련, 안전성 검증, 종합대책 추진이 시급함을 강조
	□ 춘천시 14일 '탄소감축과 이끼산업 활성화 방안' 포럼 개최(2025.11.06) - 이끼가 이산화탄소 감축 대안으로 주목받는 가운데, 14일 춘천 강원대학교에서 '탄소감축과 이끼산업 활성화 방안' 포럼 개최 - 이번 포럼은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 녹색산업 동력 모색을 위함. 원예, 건축, 바이오소재, 생태복원 등 이끼의 다양한 산업화 가능성 탐색 - 기조강연, 4개 주제 발표, 종합토론 등으로 진행. 포럼을 통해 강원형 탄소감축 모델과 생태 기반 지역산업의 미래를 여는 계기 마련 기대

구분	제목 및 주요 내용
지자체	□ 금강청·삼성전자, 충북 옥천에 '탄소중립 숲' 공동 조성(2025.11.06) - 금강유역환경청이 6일 삼성전자와 충북 옥천군에서 '탄소중립 숲 조성행사' 개최. 이는 온실가스 저감 및 ESG 경영 실천을 위함 -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금강청과 20개 녹색기업이 체결한 'ESG 경영문화 확산 협약'의 세부 사업 중 하나로 추진됨 - 탄소중립 숲 6453㎡에 탄소 흡수능력이 우수한 자생종을 식재. 연평균 약 20tCO₂eq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되며, 옛 축사 부지를 활용해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계 복원에 기여
	□ 완주군의회 탄소중립 특위, '분산에너지 4차 포럼' 개최(2025.11.06) - 완주군의회 탄소중립·녹색성장 특별위원회가 6일 '분산에너지 4차 포럼' 진행. '수소연료전지와 ESS저장장치'를 주제로 기술 동향 및 지역 적용 방안 논의 - 양영근 한국가스신문사 대표가 수소연료전지 기술과 ESS의 융합 가능성,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을 제시. 완주군의 에너지 자립 선도 모델 구축 잠재력 강조 - 토론에서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의 지역 수용성, ESS 안전관리, 제도적 지원 필요성 등이 논의됨. 군의회는 지역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 약속
	□ 청주시,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로 탄소중립 박차(2025.11.07) - 청주시가 '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민간 투자사업' 시행자 지정 절차 돌입. 2029년 준공 목표로 탄소 중립 실현에 박차 - 이 시설은 음식물 폐기물, 하수슬러지 등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. 화석 연료 대체, 에너지 자립도 제고, 온실가스 저감 효과 기대 - 1일 370톤의 폐자원 처리 및 3만Nm³의 바이오가스 생산 가능. 연간 1만 1655톤의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전망. 시설 상부는 공원 등으로 활용해 환경권 향상 기여

구분	제목 및 주요 내용
지자체	□ 창원시, 2025년 탄소중립·물순환 등 환경도시 전환 성과 발표(2025.11.11) - 경남 창원시가 2025년 한 해 동안 지속가능한 도시 전환을 위해 환경정책 기반 구축, 물순환 회복, 탄소중립 실현, 생활환경 서비스 강화 등을 추진 - '2040 창원 환경계획' 수립 착수, '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' 추진, '제1차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계획' 수립 등 기후변화 대응 및 물관리 강화 - 시민 참여형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 확대 및 공영자전거 '누비자' 운영, 대기오염 저감사업 등을 통해 시민 체감형 환경서비스 확대

☞ AI 분야

구분	제목 및 주요 내용
중앙부처	□ 행정안전부, 'AI정부실' 신설 등 조직 개편 추진(2025.11.06) - 행정안전부가 공공부문 AI 전환을 총괄하는 'AI정부실' 신설을 포함한 조직 개편안 발표. 이르면 이달 말 새로운 조직체계 출범 전망 - 기존 디지털정부혁신실 대신 신설되는 AI정부실은 AI정부정책국 등 3개국으로 구성. 조직개편 완료 시 '7실·1대변인·28국·관' 체계로 전환 - 이번 개편에는 자치혁신실, 사회연대경제국 신설도 포함됨. 핵심과제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하여 국민 체감 성과 창출을 위한 실행체계 구축이 목표임 □ 내일사장, 생성형 AI와 빅데이터로 소상공인 창업 지원(2025.11.06) - '내일사장'이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상공인 창업 지원 플랫폼으로 주목. 예비창업자에게 사업 타당성 검토 서비스 제공 - 창업 초기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예상 매출, 권리금 분석 등 정량 데이터 기반의 투명한 매장 거래 환경 구축 - 생성형 AI 기반 창업 매칭 서비스로 지자체와 기업의 협업 요청 증가. 맞춤형 정보 제공, 자금 연계 등으로 민간 사회안전망 역할 기대

구분	제목 및 주요 내용
중앙부처	□ 정부, AI 등 첨단산업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계획...파격적 세제·금융 지원 (2025.11.06) - 산업통상부가 연내 '제3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' 발표 예정. 향후 5년간 AI 등 첨단산업 및 서비스 분야 중견기업 육성 목표 - 3차 계획의 핵심은 AI 기반 중견기업 성장 정책임. 중견기업 수를 6000곳 이상으로 늘리고, 혁신 중견기업에 대출한도 상향 등 정책 지원 강화 - 제조업에 편중되었던 기존 지원과 달리 서비스 분야 지원을 확대하고, 초기 중견기업의 성장 사다리 강화. 업계는 자본 및 인력 문제 해결 촉구
지자체	□ 포항시, AI 접목 '스마트헬스케어 도시'로 도약...건강생활지원센터 착공 (2025.11.06) - 포항시가 AI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스마트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추진. 옛 북구보건소 부지에 '포항시 건강생활지원센터'를 2026년 7월 개소 목표로 이달 착공 - 총사업비 59억 원 투입, 연면적 2,952㎡ 지상 3층 규모로 조성. AI 운동프로그램실, 스마트건강측정실 등 시민 참여형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운영될 예정 - AI 기반 시스템으로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솔루션 제공. 예방과 웰니스 중심의 보건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스마트 헬스케어 도시로의 도약 기대
	□ 대구시, 지역 특화 '버티컬 AI'로 AX 전략 추진(2025.11.06) - 류동현 대구시 과장이 '2025 서울미래컨퍼런스'에서 지역 고유 데이터 기반의 AI 비서(에이전트) 개발 가능성 제시. 지역에도 AI 기회가 있음을 강조 - 지역적 데이터에 특화된 '버티컬 AI' 사례로 사투리 AI 개발 시도 소개. 정부 'AI 고속도로' 정책과 연계해 지역 산업 전반의 AI 전환(AX) 준비 - 대구시는 '수성알파시티'를 기반으로 AI 로봇, 바이오·헬스케어 분야를 특화 중. AI 활용 산업 대전환을 통해 지역 GRDP 상위권 도약 목표

구분	제목 및 주요 내용
지자체	□ 경상남도, '생성형 AI 기반 통합복지플랫폼' 구축 착수(2025.11.06) - 경남도가 도민의 복지서비스 접근성 및 행정 효율성 강화를 위해 '생성형 AI 기반 통합복지플랫폼 구축 용역' 착수보고회 개최 - 이 플랫폼은 분산된 복지정보를 통합하고 AI를 통해 맞춤형 상담 제공 목표. 도민이 문자나 음성으로 본인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 추천 가능 -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용역 추진 후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6월 정식 서비스 예정. 데이터와 API를 민·관·학에 개방하여 공동 활용 지원 계획
	□ 김영록 전남지사, "AI·에너지 수도로 연간 1조 원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"(2025.11.06) - 전라남도 전역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최종 지정됨. 김영록 지사는 이를 계기로 전남을 '기회의 땅'에서 '황금의 땅'으로 만들겠다고 발표 - 분산특구는 지역 생산 전기를 한전 없이 직접 공급하는 시스템. AI 시대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글로벌 AI 기업 유치 토대 마련 - 오픈AI, SK그룹, 삼성SDS 등의 데이터센터 유치에 이어 더 많은 첨단기업 유치 기대. RE100산단 조성, AI·에너지 수도 도약으로 연간 1조 원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 목표
	□ 부산 사하구, 900만 원으로 자체 AI 개발...타 기관 벤치마킹 이어져(2025.11.06) - 부산 사하구가 약 900만 원의 서버 구축비로 생성형 AI '사하아이'를 자체 개발. 외부 용역 시 수억 원이 드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- 부산교통공사를 비롯해 부산 내 구·군, 김해시, 양산시 등 20곳의 기관이 예산 절감을 위해 사하구의 자체 개발 사례 벤치마킹 - '사하아이'는 IT 경력 공무원 등 4명이 3개월간 개발. 기초 코딩부터 딥러닝까지 7~8개월 교육 시 일반 직장인도 개발 가능해 직장인 교육 수요 증가 추세

구분	제목 및 주요 내용
지자체	□ 울산 미포산단, '분산 에너지 특구' 지정 보류...SK·아마존 AI 데이터센터 차질 우려(2025.11.06) - SK와 AWS가 국내 최대 규모 AI 데이터센터를 짓기로 한 울산 미포산단이 정부의 첫 '분산 에너지 특구' 지정에서 보류됨 - 분산 에너지 특구는 발전사와 전기 직접 거래 및 요금 자율 책정을 허용하는 제도. SK와 아마존은 특구 지정을 전제로 저렴한 전력 조달을 기대함 - 제주, 전남 등 4곳은 최종 선정되었으나 울산은 보류됨. 이번 결정으로 AI 데이터센터 사업이 시작부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제기

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

☞ 탄소중립 분야

구분	제목 및 주요 내용
국가기관	□ 국가철도공단, 탄소중립 위한 'SBTi' 인증 본격 추진(2025.11.07) - 국가철도공단이 글로벌 기준의 탄소배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'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(SBTi)' 인증을 본격 추진 - 공단은 SBTi 인증을 통해 과학적 감축목표 설정 및 철도 공급망 전반을 포함한 전주기 탄소 관리체계 구축 계획. 이는 공공기관 중 선도적 도입임 - 철도시설 활용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도 포함. 정부의 NDC 및 RE100 전환 정책 달성에 기여하고, 저탄소 기술 확산을 통해 수송부문 탄소중립에 앞장설 방침

구분	제목 및 주요 내용
국가기관	□ 중소 제조업 위기, AI·탄소중립 공동 대응 필요성 제기(2025.11.11) - 중소기업중앙회가 11일 '중소 제조업 전환 전략' 정책토론회 개최. AI 기술 역량 강화와 탄소중립 대응 정책 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 - 오윤환 연구위원은 제조업 위기를 지적하며, 현장 중심 첨단화, 탄소중립 공동 인프라, AI·로봇 기술 도입 지속성 확보 등을 경쟁력 제고 과제로 제시 - 종합 토론에서 업종별 공동 대응체계 마련, 전력비 보조 등 정책 지원, AI 기술 내재화 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 제시. 정부는 AI 중심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발표
지방기관	□ 울산생명의숲, 울산고에 '탄소중립 숲' 조성 기금 전달(2025.11.06) - 울산생명의숲이 한국에너지공단, 선한푸드앤컬처와 함께 울산고등학교 내 'Together With KEA 탄소중립 숲' 조성 - 6일 울산고에서 '탄소중립 숲 조성 기금 전달식' 개최 - 전달식에는 장병윤 울산생명의숲 이사장, 김주호 울산고 교장, 이규태 한국에너지공단 실장, 빈정은 선한푸드앤컬처 대표 등이 참석

☞ AI 분야

구분	제목 및 주요 내용
국가기관	□ 철도공단, '2025 스마트건설·안전·AI 엑스포' 개최(2025.11.06) - 국가철도공단이 'AI와 함께하는 스마트 건설'을 주제로 5~7일 킨텍스에서 '2025 스마트건설·안전·AI 엑스포' 개최

구분	제목 및 주요 내용
국가기관	- 이번 행사는 정부, 공공기관, 민간기업이 참여해 건설 안전과 기술혁신 사례를 선보이는 상생 플랫폼을 목표로 함. 공단은 총괄·주관 기관으로 참여 - 건설 AI 특별관 등 250여개사 750여개 부스 구성. 철도 BIM AR 체험,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 등 철도 분야 스마트 기술 소개로 인프라 건설 선도 의지 표명
지방기관	□ 케이워터기술, AI·로봇 기반 첨단 점검정비 기술로 물관리 혁신(2025.11.06) - 케이워터기술이 한국수자원공사, 한국폴리텍대학과 '광역상수도 및 댐 시설 점검 정비 기술 향상' 업무협약 체결. AI·로봇 기반 첨단 기술로 물관리 혁신 추진 - 4차 산업 기술 도입 흐름에 맞춰 자체 점검정비 기술 고도화 방침. ICT 기반 설비점검,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 연계로 AI 진단 결과의 현장 적용 역량 확보 계획 - 폴리텍대학과 협력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물관리 전문 인재 양성 체계 마련. 현장 실습 중심 교육으로 미래 물산업 실무형 기술 인력 지속 배출 예정 □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, '충북 AI전략연구센터' 개소(2025.11.06) -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5일 '충북 AI전략연구센터' 개소식 개최. 지자체, 대학, 연구기관, 산업계 관계자 30여 명 참석 - AI전략연구센터는 충북 전략산업(바이오·반도체·모빌리티)과 연계한 AI 기술의 실증·활용·사업화 촉진 목적. AI 기반 창업생태계 강화 목표 - 개소식을 통해 각 기관은 AI 산업 기반 확대와 지역 혁신성장 전략 논의. 충북이 국가 AI 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도약할 방향 공유

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(포럼, 세미나, 토론회) 주요 내용

☞ 탄소중립 분야

구분	제목 및 주요 내용
민간기업	☐ 신한 글로벌탄소중립솔루션 펀드, 1년 수익률 92.52%로 1위 달성(2025.11.06) - 신한자산운용의 '신한글로벌탄소중립솔루션펀드'가 1년 수익률 92.52%로 해외주식형 펀드 중 1위 달성. 올해 540억 원의 신규 자금 유입 - 해당 펀드는 AI 인프라, 재생에너지, 피지컬 AI, 순환경제 등 탄소중립 핵심 산업군에 선별 투자. 약 40~50개 글로벌 대표 기업 및 국내 대표 기업을 포함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운용 - 주요 투자 종목은 테슬라, 엔비디아, 삼성전자 등으로 'AI+에너지 전환' 핵심 기업임. 기술혁신과 ESG 가치를 결합한 지속성장형 투자상품으로 안정적 성과 기대
	☐ KCC-HD현대, 선박용 수용성·차단열 도료 공동 개발로 탄소중립 추진(2025.11.06) - KCC와 HD현대 조선 4사가 선박 비침수 구역용 수용성 방청 도료 공동 개발. 기존 용제형 대비 건조 시간 단축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(VOC) 배출 감소가 특징임 - LNG 운반선용 차열·단열 도료 또한 공동 개발의 주요 성과임. 외부 열 침투를 막아 증발가스(BOG) 발생을 억제하며, 화물 손실 감소 및 탄소 배출 절감에 기여 - 양사는 이번 공동 개발이 선박용 친환경 도료 기술의 국산화로 조선업계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. IMO 환경 규제 대응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 전망
	☐ 엔틀·산단공, 베트남 방문단 대상 주안산단 탄소중립 사례 견학 주최(2025.11.06) - 주식회사 엔틀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10월 29일 주안국가산단에서 베트남 현지 방문단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사례연구 현장방문 실시 - 이번 방문은 베트남 정부의 에너지효율 향상 프로그램(VSUEE)의 일환임.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 및 산업단지 에너지효율 향상 사업 성과를 학습하고 베트남 적용 방안 모색

구분	제목 및 주요 내용
민간기업	- 베트남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관계자 24명이 참여함. 산단공과 인천시의 사업 현황 소개 후, 스마트에너지플랫폼 우수참여기업 현장 방문 및 협력 방안 논의 진행
	□ 금호석유화학그룹, 환경 경영 내실화로 탄소중립 가속(2025.11.06) - 금호석유화학그룹이 환경 경영 시스템을 전면 강화하며 2050년 탄소중립 실현에 속도를 냄. CCUS 적용, 폐기물 재원료화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 - 금호석유화학은 '폐기물 매립 제로 인증' 확대 및 CCUS 설비 구축, 금호피앤비화학은 설비 모니터링 및 화학물질 관리 강화 - 금호미쓰이화학은 리사이클링 공정 도입 및 친환경 원료 활용, 금호폴리켄은 환경오염 방지시설 확충 및 폐기물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환경 경영 내실화
	□ 대성해강사이언스포럼, "AI가 바이오 혁신 및 에너지 효율 주도"(2025.11.06) - '2025 대성해강사이언스포럼'에서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과 이상엽 KAIST 부총장이 'AI 시대의 바이오 혁신'을 주제로 대담 - 이 부총장은 AI 도입으로 신약 개발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되었으며, 2035년에는 AI 없는 신약 개발이 없을 것으로 전망. 바이오 제조 분야 패러다임 변화 강조 - 김 회장은 AI가 에너지 효율화를 '제1의 에너지'로 만들 것이라 언급. 양측은 바이오 AI 혁신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환경 마련 필요성 역설
대학교	□ UNIST, '배터리·AI·탄소중립' 주제 전기화학 파이오니어 심포지엄 개최(2025.11.11) - UNIST가 13~14일 '제1회 UNIST 전기화학 파이오니어 심포지엄' 개최. '전기화학의 혁신'을 주제로 세계적 석학 초청 및 차세대 에너지 기술 방향 논의 - 심포지엄은 배터리 에너지 저장, 수소 생산용 전기촉매, AI 기반 소재 개발 등 탄소중립 핵심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 - 스탠퍼드대 이 추이, 토마스 하라밀로 교수 등 해외 석학과 (주)에스엠랩 조재필 대표 등 국내 전문가 참여. 학문 융합과 산업계 협력, 미래 인재 양성 계기 기대

구분	제목 및 주요 내용
대학교	□ 전남대 차세대통신사업단, '광주 마니' 팝업 아카데미 개최(2025.11.06) - 전남대 차세대통신혁신융합대학사업단이 광주시와 공동으로 15일부터 12월 6일까지 매주 토요일 '광주 마니(MAND)' 팝업 아카데미 진행 - 미래차, AI, IoT 등 첨단분야 최신 동향을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는 연속 강연 형식. 양자컴퓨터, 생성형 AI, 6G 등 현안 이슈 포함 - 모빌리티·AI 특성화 도시 광주의 시민 이해도를 높이고 디지털 문해력 증진 목적. 전 과정 무료이며 광주지역 고등학생 진로 탐색에도 도움 예정
해외	- (해당 없음)
기타	□ 지난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역대 최고치 경신(2025.11.06) - 지난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577억tCO₂ eq로 역대 최고치 기록. 전년 대비 약 2.3% 증가한 수치이며, 2010년대 연평균 증가율의 4배 수준임 - 유엔환경계획(UNEP)은 배출량 격차 보고서를 통해 신속한 감축 필요성을 경고함. 현재 추세 유지 시 세기말 지구 온도 2.8도 상승 전망으로, 파리협정 목표치 1.5도 초과 - 각국 감축목표(NDC) 이행 시에도 2.3~2.5도 상승 예상. 중국이 배출량 1위이며 EU만 유일하게 감소. COP30이 브라질에서 열릴 예정이나 미국의 불참 우려 □ 기고: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K-water의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노력(2025.11.06) -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33%가 건축물에서 발생.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 중이나 건물 에너지 효율은 OECD 하위권 수준임 - 한국수자원공사(K-water)는 정부 정책에 맞춰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 추진. 전국 1600여동 건물 대상 단계적 그린 리모델링 진행 및 한강유역본부 사옥 시범 사례 - 건물 온실가스 감축은 환경과 성장의 선순환을 만드는 일임. 정책, 기술, 현장을 연결하는 AI 수요 예측 등 신기술의 일상 속 적용을 통한 탄소중립 현실화 노력

☞ AI 분야

구분	제목 및 주요 내용
민간기업	□ SKT "이동통신과 AI의 융합, 6G 시대 핵심 동력"(2025.11.06) - 류택기 SK텔레콤 부사장이 '2025 서울미래컨퍼런스'에서 차세대 이동통신 발전의 핵심으로 'AI 내재화' 강조. 통신망의 지능화 시대 도래 - 2030년 상용화 목표인 6G는 초저지연, 초연결 인프라로 진화할 전망. 자율주행차, UAM 등에 필수적인 AI가 6G 진화의 핵심 기반임 - 6G 시대에는 통신망 자체가 AI 연산을 수행하는 '엣지 AI' 기술이 주목받음. 통신 3사와 삼성전자, 엔비디아 등이 'AI RAN' 기술 공동 연구 협약 체결
	□ 아나플래시, 삼성 파운드리 28nm 공정 기반 AI MCU 공개(2025.11.06) - 엣지 AI 프로세서 스타트업 아나플래시가 삼성 파운드리 28nm 공정을 사용한 AI MCU(마이크로컨트롤러유닛) 개발 - 아나플래시의 로직-EFLASH 기술 기반으로, 표준 로직 장치만을 활용해 제로 대기 전력 수준의 메모리 구현. 비용 및 에너지 효율성 확보 - 이 AI MCU는 훈련된 AI 모델을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4비트/셀 임베디드 플래시 기술 시연. IEEE 아시아 솔리드 스테이트 회로 학회에서 아키텍처 발표
	□ 제논, AI가 실제 업무 수행하는 '액서너블 AI' 공개(2025.11.06) - 기업용 AI 솔루션 기업 제논이 5일 '원 에이전트' 공개. 이는 생성형 AI가 질의응답을 넘어 직접 시스템을 제어하며 업무를 실행하는 '액서너블 AI'임 - 멀티모달 AI가 브라우저와 OS를 직접 제어하는 '브라우저 유즈'와 '컴퓨터 유즈' 기술 기반. 휴가 신청, 경비 처리 등 다양한 업무 자동화 가능 - 제논은 이 기술이 국내 최초 상용화 사례라 밝힘. AI가 반복 업무를 처리해 업무 효율을 높이며, 코스닥 상장 및 '피지컬 AI'로의 기술 고도화 추진 중

구분	제목 및 주요 내용
민간기업	□ 퀄컴, HBM 대신 LPDDR 탑재한 신형 AI 가속기 출시 예고(2025.11.06) - 엔비디아 GPU와 HBM 쏠림 현상을 견제하는 움직임 발생. 높은 가격이 '탈엔비디아', '탈HBM'의 원인으로 작용 - 퀄컴이 내년과 2027년 HBM 대신 저렴한 LPDDR을 사용한 차세대 AI 가속기 'AI200', 'AI250' 출시 발표. 가성비를 중시한 전략임 - 인텔, 텐스토렌트 등도 HBM을 대체하는 메모리를 사용한 AI 칩 공개 및 상용화 계획. AMD, 구글 등도 엔비디아 종속 구조를 깨기 위한 움직임 가속화
	□ 깃허브 '에이전트 HQ' 발표, AI 에이전트 허브 전략 확산(2025.11.06) - 깃허브가 '유니버스 2025'에서 '에이전트 HQ' 발표. 여러 코딩 AI 에이전트가 한곳에서 협력하며 개발자의 지시를 수행하는 기능 - 테크 기업들이 자체 AI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외부 AI 에이전트를 통합하는 '에이전트 허브' 전략으로 선회 중 - 세일즈포스의 '에이전트 익스체인지', AWS의 '아마존 베드록 에이전트' 등이 사례. 다양한 AI 협업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 및 AI 생태계 장악 목적
	□ SK그룹, CEO 세미나 개최...리밸런싱 및 AI 미래 전략 재정비(2025.11.06) - SK그룹이 6일부터 8일까지 이천 SKMS연구소에서 CEO 세미나 개최. 내년도 경영 전략 수립 및 사업 밑그림 구상 - 행사 전 조기 인사를 통해 새로운 경영진이 대거 합류. '리밸런싱 고도화'가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며, 최태원 회장은 '운영 개선'의 지속성 강조 - AI 전환 전략 또한 중점 논의 주제. 최 회장은 AI가 모든 곳의 화두가 되었다고 언급. AI 데이터센터, 반도체 등 전 영역의 시너지 창출 방안 논의 예정

구분	제목 및 주요 내용
민간기업	□ 하나금융그룹, 디지털자산과 AI를 축으로 금융 대전환 선도(2025.11.06) - 하나금융그룹이 디지털자산과 AI를 양대 축으로 금융 대전환 추진. 이는 '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'의 '디지털금융 주도' 계획 일환임 - 지주 산하 디지털 전담 TF를 구성, 관계사 공동 대응 체계 구축. 스테이블코인, STO 등 디지털자산 분야 인프라 구축 신속 추진 - AI를 생산적 금융의 핵심 영역으로 설정. 독자 연구 조직 '하나금융융합기술원'을 통해 AI 내재화를 실행 중이며, 'AI기본법'에 대비한 거버넌스도 선제적 구축
	□ 파두, AI 데이터센터 성장세 힘입어 올해 누적 수주 834억 원 달성(2025.11.06) - 데이터센터용 SSD 컨트롤러 팹리스 기업 파두가 올해 1~11월 누적 수주액 834억 원 기록. 전년 동기 대비 162.7% 증가한 수치 - 지난 4일 대만 맥니카 갤럭시와 216억 원 규모 SSD 공급계약 체결 등 4개월 연속 대형 수주 기록. 하이퍼스케일러 및 낸드 제조사 대상 동시 수주 증가 - AI 데이터센터 스토리지 수요 폭증으로 컨트롤러와 SSD 완제품 동시 수주 증가. 북미 빅테크향 컨트롤러와 아시아용 SSD 매출을 핵심 성장 축으로 설정
	□ 대우건설, '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' 의장사 취임...AI·데이터 도입 주도(2025.11.06) - 대우건설이 5일 '2025 스마트건설·안전·AI 엑스포'에서 '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제3기 의장사'에 공식 취임 - 김보현 대표는 AI와 데이터가 건설산업의 본질을 바꾸고 있다며, 기술과 데이터 융합을 통한 경쟁력 향상 강조. AI는 선택이 아닌 국가적 과제라 언급 - 대우건설은 정부 정책과 현장 연계 강화, AI 기반 기술 및 데이터 공동 활용 확대, 상생 생태계 조성 등을 운영 방향으로 제시. 자체 개발 AI 솔루션 '바로답 AI' 등 활용

구분	제목 및 주요 내용
대학교	□ 인하대, 퓨리오사AI와 AI 반도체 설계 및 인재 양성 협약(2025.11.06) - 인하대학교와 AI 반도체 기업 퓨리오사AI가 AI 반도체 설계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. 양측은 설계, 패키징, 테스트 등 전 과정 공동 연구 및 기술 교류 진행 - 첨단 기술과 연계한 실무형 교육과정 개발, 학생 인턴십 운영으로 반도체 전문 인재 양성 계획. 지속 가능한 산학협력 모델 강화를 목표로 함 - 퓨리오사AI는 AI 추론용 고성능 NPU 개발 기업임. 이번 협력은 AI 반도체 산업 핵심 공정 전반에 걸친 통합형 기술 인재 양성의 모범 사례가 될 전망
	□ 울산대, '글로벌 인더스트리얼 AI 대학원' 설립 추진(2025.11.06) - 울산대학교가 울산 산업에 특화된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(가칭) '글로벌 인더스트리얼 AI 대학원' 설립 추진 - 산업 특화형·현장 중심형 AI 전문가 육성을 목표로 함. 모빌리티, 제조, 에너지 등 울산 핵심 산업과 직결된 AI 융합기술 교육과정 구축 - 2026년 첫째 산업 AI 석사학위 과정(30명)과 비학위 과정(30명) 등 60명 내외 모집 예정. 향후 범위 확대 계획
해외	□ 미국 'AI 거품론' 여파로 국내 증시 급락, 개인이 4000선 방어(2025.11.06) - 미국 증시가 'AI 거품론'으로 기술주 중심으로 급락하며 5일 아시아 증시 동반 하락. 코스피는 장중 3900선이 붕괴되었으나 4004.42로 마감 -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 발동. 외국인인 양대 시장에서 울들어 최대 규모의 순매도를 기록했으나, 개인이 매물을 받아내며 하락 폭 일부 회복 - 전날 미국 나스닥과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가 급락하고 투자은행 CEO들의 추가 조정 경고가 나옴. 증권가는 단기 급등 피로감에 따른 조정으로 분석

구분	제목 및 주요 내용
해외	□ 오픈AI "현재 IPO 계획 없다", 1조 달러 상장설 부인(2025.11.06) - 새러 프라이어 오픈AI CFO가 5일 'WSJ 테크라이브 콘퍼런스'에서 2027년 IPO 준비설을 공식 부인 - 프라이어 CFO는 IPO라는 족쇄에 얽매이기보다 지속 성장에 집중 중이라 밝힘. 자본 조달을 위해 은행, 사모펀드, 정부 등 다양한 생태계 모색 - 특히 정부 보증을 통한 자금 조달 비용 절감 및 부채 규모 확대 방안 언급. 한편, '챗GPT 포 워크' 등 기업 고객 수는 100만 개사 돌파
기타	□ AI 시대 한국 성인교육 참여율, OECD 최하위 수준 기록(2025.11.06) - AI로 인한 직무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, 한국의 직무 관련 성인교육 참여율이 OECD 31개국 중 최하위 기록. 지난 10년간 하락 폭도 가장 큼 - 한국 중소기업의 AI 도입률은 31.3%로 낮으며, '재직자 AI 역량 부족'이 주된 원인으로 꼽힘. 그러나 정부 직업훈련 정책은 구직자 중심 설계의 한계 보유 - 보고서는 교육정보 제공 확대, '마이크로크리덴셜' 및 '사전학습인정(RPL)'을 통한 역량 인증체계 구축, 맞춤형 교육 매칭 플랫폼 마련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안
	□ 기고: 한국에 세계 최고 인재 모이는 'AI 프리미어리그' 필요(2025.11.06) - 국가 전략 산업인 AI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낮은 이유는 세계 최고 인재가 경쟁하는 'AI 프리미어리그'가 한국에 부재하기 때문임 - 미국 빅테크 기업은 천문학적 연봉으로 인재를 영입해 거대한 리그를 형성. 과거 한국의 '패스트 팔로워' 전략은 인재가 핵심인 AI 산업에 적용 불가 - 한국의 AI 전략은 '투자'에서 '사람' 중심으로 전환 필요. 세계 최고 수준의 무대를 제공해야 우수 인재가 몰리고 'AI 선도국가' 실현 가능

구분	제목 및 주요 내용
기타	□ 기고: 정부·기업의 엔비디아 GPU 대량 구매, K-AI칩 육성 전략 부재(2025.11.06) - 한국 정부와 기업이 엔비디아 GPU 26만 장 구매 협력 발표. 이는 국가 AI 역량 강화에 긍정적이나, 국산 AI칩 육성 로드맵 부재 문제 - 소버린 AI는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하드웨어 경쟁력도 필요함. 엔비디아 독주 허용 시 AI 하드웨어의 대미 종속 심화 우려 - 중국과 미국조차 엔비디아 견제 및 자국 칩 육성 전략 병행. 공공 AI 데이터센터에 국산 AI칩 활용 확대 및 구매 기업 대상 지원 정책 필요

※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(연구기획전략실)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,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.